

서로에게 소식을 전함시다

동 정

◆ 김정행 회원 (용인대학 총장)



지난 94년 용인대학교 제 2대 총장으로 취임해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김 회원은 최근 제 5대 총장으로 재취임했다. 김 회원은 장학이념을 계승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남오 회원 (前 서울병무청장)



허 회원은 최근 서울 병무청장직에서 퇴임한 후 자연보호 중앙협의회 상임 이사 겸 진주지부 명예 회장으로 취임했다. 허 회원은 제 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지난 78년 경찰에 투신하여 경남 진주·서울 동부서장,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충북·부산병무청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현재 환경법학 박사이기도 하다. (☎ 055-752-4226, 011-380-4954)

◆ 금익모 회원 (前 서초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지난 91년 현직에서 물러났던 금 회원(69세)은 서초 로타리 클럽, 경동라이온스 클럽, 서초 경우회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서초 로타리 3640지구



부총재 겸 9지역 대표(산하 9개 그룹)를 맡고 있는 금 회원은 불우이웃 돕기에도 앞장서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02-587-7251, 011-9903-3253)

◆ 이주자 여경회장



지난해 5월부터 재향여경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 회원은 지난 2월 21일 제 51차 여성단체협의회 총회에서 단체의 상임위원(서기 이사)으로 선출되었다. 이 회원은 『여협과 회원들의 권익옹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 소수웅 회원 (군산경우회 부회장)



현직시절 군산경찰서에서 주로 근무해 왔던 소 회원은 최근 군해 안강망 수산업 협동조합 총회에서 16대 조합장으로 재선되었다. 전국 94개 조합장 가운데 유일한 경우회원 출신 조합장으로 『새로운 임기 4년 동안에도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증대를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05-4, ☎ 02-2606-4851, 011-671-0325)



警專 本科 2기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윤일균(尹鎭均, 前 국제공항관리공단 이사장) 회원이 최근 「한·미 합동 첩보비

화 6006부대」란 책자를 발간했다. 윤 회원은 『동쪽상잔의 비극인 6.25 발발 56주년이 되었고, 아직도 조국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보다 정확히 알려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에서 직접 체험한 기록을 간추려 하나로 엮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자에서 軍 경험을 바탕으로 6.25의 발발과 당시 한국군의 활동, 미 공

군과 유엔공군 전투기록 등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6.25 이전부터 공군의 정보 분야는 물론 영공 방위의 일각을 담당할 것을 기화로 공군 정보국장과 특무부대장, 중앙정보부 차장 및 부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하며 조국 수호의 최전방에서 일 했던 윤 회원.

그는 『비밀전 용사로서 아무도 모르는 곳,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적지에서 묵묵히 소임에 전념하다가 외롭게 숨겨진 수많은 비밀전 군무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6.25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며,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소 변 경

◆ 부산해경 경우회

부산시 진구 부전동 474 -80번지
유원골든 타워 오피스텔 15층 1505호
☎ 051- 818-1053

◆ 장일훈 회원 (前 치안본부장)

서울 양천구 목 4동 722번지
세종 그랑시아@ 103동 1802호

◆ 최금우 회원 (경전 45기 동우회장)

경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698
동문 10차@ 1003동 1403호
☎ 031-946-9188

◆ 박순덕 회원 (서울여경회)

서울 마포구 창전동 35-5
삼성 콜로스 빌 B동 201호

◆ 김용덕 회원 (경우산악회)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9번지
동부 센트레빌@ 104동 705호
☎ 02-956-6759, 016-9320-6754

결 혼

◆ 김광우 회원 (前 총경, 인천경우회 부회장)

의 차녀 정은 양이 오는 3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미국 뉴욕 순복음 교회에서

◆ 이종안 회원 (前 서울방배서 경무과장)

의 장녀 지현 양이 오는 3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 엠베서 더 강남 2층 샴페인 홀에서(☎ 031-287-3527, 011-216-3455)

◆ 김선주 회원 (45 동우회)의 막내 딸 회강

양이 오는 3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청담 웨딩프라자에서

◆ 한정민 경위 (경찰청 인사과)가 지난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50분 광주광역시 서구 삼록회관 3층에서

부 음

◆ 성희구 회원 (前 대구경찰청장)의 모친이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경 노환으로 별세. 향년 93세

◆ 서상빈 회원 (前 총경, 前 서울종로·중부·영등포 구청장)이 지난 2월 16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85세(☎ 031-879-3034)

◆ 백인숙 회원 (前 치안국 감식 주임, 여경 1기생)이 지난 1월 16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82세. 여경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이주자 회장, 이육자 전임 여경회장, 유족 및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을 갖고 故인(故人)의 명복을 빌었다.

모 임 안 내

◆ 서울경찰학교 제 11기

오는 3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성동구 행당동 황금가든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을 보고하는 한편 기타 당면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장 조광설 : 011-384-1341, 사무총장 이근보 : 017-264-5649)

◆ 45 동우회

오는 3월 23일 목요일 오후 5시 서울 용산역전 용사의 집에서 금년도 1분기 모임을 갖고 모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회원친목을 도모한다.

天文에 근거를 둔 人間事

- 하늘의 질서 잡는 경찰 별도 있어 -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우리 조상은 기록을 별자리에 남겼다. 그 기록이 고구려가 지금의 중국 본토에 있었을 때 만든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별로 표시된 문자를 읽으면 그 당시 사람들과의 역사·철학·사상·종교·국가체제·생활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조상이 고구려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들 때까지 9900년 전에 세운 한국시대, 5900년 전에 세운 배달나라시대, 4300년 전에 세운 단군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축적된 지식이 초기 단군조선시대인 제3대 가락단군 때(추정) 당시의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여 만든 것이 〈천상열차분야지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조상은 하늘을 태미원, 천시원, 자미원의 3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이곳은 각각 한민천제가 세운 한국에 해당하는 별들, 한웅천왕이 세운 배달나라에 해당하는 별들, 단군왕검이 세운 단군조선에 해당하는 별들의 집합장소이다.

또한 이곳에 속하지 않은 별자리들은 하늘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누고 이 사방을 28수로 구분하여 배속시켰다.

한편 태미원, 천시원, 자미원의 3원에는 태미원에 오제, 천시원에 제와, 자미원에 제와 같은 임금 별자리가 있다.

임금이 있으면 나라가 있고 물과 제도가 있다. 나라와 관직이 있는데, 나라와 관직은 본래의 이름을 버리고 후세의 이름으로 바꾸어 쓴 것으로 보이는 이름들로 변조되어 있다.

후대에 우리의 선조인 동이족에서 갈라져 나가서 오늘날의 중국 사람의 조상이 된 화하족이 후세에 가락단군 때 만든 천문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원래 힘이 센 나라가 천문과 역사를 지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 「漢江」을 「韓江」으로 고치자는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요즘이 인터넷 세상이라 인터넷 매체가 한강 이름을 고쳐서 아니 된다는 반론을 편 바 있다.

반론을 편 이유는, “우리 조상이 인류 역사상 천문을 처음 시작했는데, 천문에서 「漢江」은 「은하수」라는 뜻이고, 「漢陽」은 「은하수와 태양」이라는 뜻이다. 조선왕조를 개국하고 경복궁을 지었는데, 景福宮의 「景」은 「태양이 떠 있는 서울」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로 함부로 「漢」을 「韓」으로 고쳐서는 그 연관된 의미가 훼손되므로 고쳐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다.

중국인 금문학자 낙빈기(駱賓基)에 따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호로 쓰고 있는 「韓」이라는 문자는 舜임금이 堯임금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생겨난 문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韓」이라는 문자에는 쿠데타,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동쪽상잔의 6.25전쟁을 겪게 된 것도 대한민국의 국호 「韓」자가 가지고 있는 주술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러한 문자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漢」을 「韓」으로 고치자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선조는 위에서 보았듯이 모든 것을 천문에서 시작하였고, 시작한 것은 천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에 경찰과 관련이 있는 별은 없을까?

물론 있다. 임금이냐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이 되는 별도 있다.

하늘의 질서를 잡아주는 별을 정수(井宿)라고 하는데, 땅에서 나라의 질서를 잡아주는 기관을 경찰이라고 함으로 정수가 경찰에 해당하는 별로 볼 수 있다. 고구려의 당대에 중원의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정수를 의미하는 「井」자를 나라를 상징하는 문자로 사용했음이 공개토대왕비 상단에 표시된 정자 문양에서 밝혀진다.

하늘에서 태양을 따라다니면서 경호하는 별을 태양수(太陽守)라고 하는데, 태양계에서 태양을 경호하는 별을 「금성」이라고 함으로 「태양수」를 금성으로 볼 수 있다.



노중평 (경우문예회 간사)

김진태 前 총무국장, 경영학 박사 학위

- 「경영구조의 리모델링을 통한 중소규모마켓의 활성화 방안 연구」논문으로 -



경우회 총무국장을 역임했던 김진태 회원(77세)이 최근 八旬을 앞둔 나이에 또 불구하고 「경영구조의 리모델링을 통한 중소규모마켓의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다.

김 회원은 이 연구논문을 통해 『한국의 중소규모마켓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제공, 잉여 농산물의 거래장소 제공, 상품 구입시 이동 및 시간의 절감, 농민에게 부업(상업)기회 제공과 이로 인한 소득증대, 사회문화적인 기능의 제공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면서 『한국의 중소규모마켓을 단순히 전근대적인 시장으로 보고 방치되거나 폐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오늘날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평가하고 농촌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고령에도 불구하고 항학열을 불태우고 있는 김 회원은 현직시절부터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온 남다른 인생철학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지난 53년 경전 본과를 졸업하고 경찰에 투신해 치안본부 인사과장, 인천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관을 두루 역임하다 지난 79년 현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80년 부터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주)삼야산업을 운영하면서 노익장을 과시해 왔으며, 지난 88년 8월부터 96년 5월까지 경우회 총무국장으로 봉사하면서 조직발전과 회원 친목도모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었다. (☎ 053-942-1101, 011-9855-2716)

관절엔 역시

리포리놀[®]

초록입홍합추출오일

'경우신문'을 구독하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특별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 - 796-0065

농협 067-01-280253 (주) 씨스팜